

내가 왜 군인을 택했나? 청년장교들의 상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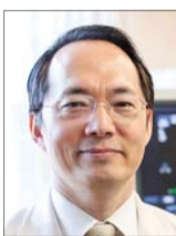


SK바이오팜, 결식아동 위한 생필품 포장 봉사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지난 8일 멤버사 SK 바이오팜 임직원들과 함께 사각지대 결식아동들을 위한 '기초 생필품 패키지' 포장 자원 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SK바이오팜 임직원들이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행복뚜기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바이오팜

삼성서울병원

신임 원장에 박승우 교수



삼성서울병원은 제 12대 원장에 박승우 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15일부터 만 3년이다. 박 원장은 심장관막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 분야의 권위자이자 병원 정보화 분야에서도 큰 기여한 바 있으며, 13년간 정보전략실장, QI실장, 기획총괄 겸 기획실장 등 병원의 주요 보직 경력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추구하는 '중증 고난도 질환 중심의 첨단 지능형 병원' 실현을 구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차우철 롯데GRS 대표, 脫플라스틱 캠페인 동참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가 환경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캠페인 '고고철티지'에 동참했다. '고고 철티지'는 환경부가 생활 속 불필요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차우철 롯데GRS 대표는 롯데물산 류제돈 대표이사의 릴레이 주자로 지목 받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 Go!' '친환경 패키징 확대Go!'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롯데GRS

인사

- ◆병무청 ◇고위공무원 임용 △강원지방병무청장 김동욱
-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센터장 김응태
- ◆광주시교육청 ◇5급 승진 △감사관 정영채 △정책국 정책 기획과 기운 △행정국 총무과 변수진 △광주시교육연수원 김민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박영태 △금호평생교육관 신범석 △광주시학교시설지원단 김은희

부음

- ▲이철훈씨 별세, 이종규(회사원)·영규(현대자동차그룹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부사장)·명화·명애·명규(경인교대 교수)·근화(지에프 인그리디언트 전무)씨 부친상, 정용진·이명진·최성우(송실대 교수)씨 장인상, 박정란·신미영씨 시부상 = 11일 오후,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2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2-3010-2000
- ▲이준희씨 별세, 이재성(제천신협농약사 대표이사)·이재규(한국대학신문 전무이사)씨 부친상 = 12일 오전 2시30분, 제천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괴산국립호국원. 043-651-5333
- ▲심필우씨 별세, 심기준(전 국회의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 협회장)씨 부친상 =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4일 오전. 033-744-3970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루

최근 사관(장교) 후보생의 지원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청년 장교들 사이에서도 '내가 왜 군인을 선택했을까'라는 후회감이 퍼지고 있는 것 같다. 대위로 진급한 지 오래되지 않은 후배가 며칠 전 "같이 교육받던 교육생 중 절반이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비 사관학교 출신과 마찬가지로 제대를 심각하게 고민 하더라"고 말했다. 왜 엘리트 군인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보장받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것일까. 이들 다수는 10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대신 '조국과 국군'을 위해 사관학

교를 선택했다. 힘들고 어려운 군사 교육과 통제된 생활을 견뎌내고 장교가 됐지만, 고교 시절 성격이 비슷했던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에는 '해외여행', '고급스런 식사', '좋은 차'의 사진이 올라온다. 반면, 직업군인을 택한 자신은 위장크림을 바르며 나이를 먹어가는 사진뿐이다. 끈대스럽게 '군인은 호사를 멀리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해. 귀관들은 나라의 몸이야'라고 꾸짖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가주의가 아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군인이라고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군사정부 시절의 장교는 지금보다 더한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해야 했다. 대신 명예와 사회적 존중이 뒤따랐다. 시민 대다수가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절, 장교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계층이었다. 제한적이었지만, 민간 사회보다 선진적

인 업무교육과 해외 유학경험도 제공받았다. 엘리트가 아닌 직업군인과 말단의 병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징병된 병도 자신의 요구를 발휘할 수 있는 지금의 군대가 훨씬 건강한 군대다. 그렇지만,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은 병에 비해 여전히 더디다. 군수뇌부와 시민사회는 '선택한 길이잖아', '너희들은 간부니까'와 같은 말로 참으라고만 말한다. 급여는 임무에 비해 박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병의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춰 주자',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자' 등 군관련 포퓰리즘 정책안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병에 대한 처우 보장은 당연한 일이지만,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청년들의 처우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병장 기준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더 많은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초임 간부의 급여도 그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병의 월급이 초급간부보다 많아진다면, 청년들은 간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군생활이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다. 징병된 병의 입장에서 간부가 더 편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직업으로서 간부들의 삶은 고달프다. 특히 신세대 간부들은 자신과 또래 이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하들을 지휘해야 한다. 청춘을 바쳐도 전역 후 삶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가고 싶고 남고 싶은 군대가 아닌데, 우수한 청년들이 군 간부로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겠는가. 선진국처럼 군간부가 군과 시민 사회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면, 국군은 구한 말 군대처럼 유약하게 쓰러질 것이다. /captain@metroseoul.co.kr

삼성전자, 협력사 온라인 채용博... 상생·고용창출 '두토끼'

'협력사와 함께 내일을 열다' 우수 협력사 53개 기업 참여

삼성전자가 협력사들과 우수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2021 삼성전자 협력회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협력사에 우수 인재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직자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박람회를 이어왔다. 청년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채용한 협력사 사원에 입사 후에도 전문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박람회는 '협력회사와 함께 내일을 열다'는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 '사람인'에서 운영 중인 '삼성전자 협력회사 채용관'에 마련했다. 참여사는 우수 협력사 53개로, 대덕전자, 드림텍, 동우화인켐, 동진세미켐, 디케이, 솔브레인, 엘오티베콤, 이오테크닉스, 원익아이피에스, 엠씨넥스, 인탑스, 피에스케이, 히로세코리아, KH바텍 등이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중견기업 동우화인켐, 엠씨넥스, 원익아이피에스, 드림텍 등도 함께했다. 반도체용 부품과 소

재, 설비를 비롯해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참여사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채용직무, 지원 자격요건, 복리후생 등의 취업 정보를 소개하고 구직자 입사 지원서를 받고 있다. 동진세미켐, 어보브반도체, 와이솔, 케이케이테크, 위드텍, 삼영순화 등 6개 기업은 비대면으로 채용 관련 문의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실시한다. 정계 인사들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감사와 지원 뜻을 표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10년째 진행되

고 있는 삼성의 협력회사 구인난 해소 노력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덕전자 김영재 대표는 "삼성전자 협력회사는 삼성의 성공 DNA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에서 구직자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며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와의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토월 앞에 전시중인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 전용 전동화 차량 GV60.

제네시스 GV60 부산국제영화제서 공개

두레리움 광장 곳곳서 차량 전시 전시 중이다. 페이스 커넥트, 지문인증 시스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모델 GV60은 영화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두레리움 광장에 마련된 제네시스 브랜드 존에서는 지난 7월 출시된 일렉트릭라이드 G80(이하 G80)를 전시하고 있다.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제네시스 G80의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제네시스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내 위치한 두레리움 광장 곳곳에서 부스 운영 및 차량을 전시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포토월 앞에는 지난 9월 30일 출시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 전용 전동화 차량인 GV60을

롯데건설, 2021 여성인재 리더십 포럼

롯데건설은 지난 7일 여성인재를 대상으로 '2021년 여성인재 리더십 포럼'을 비대면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 여성인재 리더십 포럼'은 롯데건설에 근무 중인 여성인재의 역량 강화와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포럼의 주된 내용은 '여성 리더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번 포럼은 외부 명사 초청 강연으로 윤여순 박사(전 LG아트센터 대표)가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계열사 여성 임원 초청 강연으로 최진아 상무(롯데제과 글로벌영업부문장)가 '롯데그룹 여성 임원으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롯데건설은 2018년 'W Leadership Program'을 시작으로 올해로 4년째 여성인재 포럼을 이어오며,



롯데건설 직원이 '2021년 여성인재 리더십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건설

여성인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회사 차원의 의지를 공유하고 여성인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